



해인신앙의 의의

(지난호 이어서)

그리고 상상적인 만족을 통해 가칠고 힘든 현실의 한계와 충격에도 대항할 수 있다. 깊은 절망에서 회복하기 위해 위안이 되는 일은 행복한 결말이 약속되는 것이다. 현실의 무능과 해결 능력의 부족이라는 무기력감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낙관주의적 전망이 요청된다. 없다고 단정하는 일보다는 있다고 믿는 편이 낫다.

물론 해인신앙을 형성하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비주류인 아웃사이더이자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우리 사회와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주류에 속하지 않은 비주류와 중심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아웃사이더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큰 외침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이어져 왔으며 때로는 은밀하게 전해져야만 했던 그들의 주장에 담긴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밝혀내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구성요소와 공통적인 줄거리를 지닌 해인 이야기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복원하여 해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일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해석을 위한 한 방법이 된다. 친숙한 형태로 전승되던 이야기의 상징과 해석을 통해 그들의 무의식적 욕망과 공포를 살펴보고, 그들이 세계를 보았던 방식과 신화적 사고의 표출 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은 지난 시대 우리 선조들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 문화의 지층 또는 무의식층에 해인이라는 보물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른바 예언이나 비결은 아직 오지 않은 앞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예언이나 비결이 정확할 것이라는 신빙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난 일에 대해 정확히 맞추었다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해인사(海印寺)가 창건되었고 그곳에 해인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으며 진인이 해인을 가지고 숨어있다가 곧 출세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 세상을 단순히 속된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해인신앙을 통해 천주교도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흥선대원군이 비결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억울한 민중의 고통과 원한마저도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기 위해 넘어서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해인이 지닌 신비한 힘은 원자탄 등의 현대식 무기도

거뜰히 물리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해인이 현실사회에서도 여전히 성스러운 보물이라고 인식한다. 여기서 해인의 조화력에 의해 우리나라가 상등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동양의 조화력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민중의 염원이 빚어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해인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체적인 모순을 적어도 관념의 세계나 체계 안에서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 했던 것이다. 해인 이야기는 상상력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이 되려는 바람을 실현하려고 했던 믿음이지만,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논리적 과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인신앙의 전개와 확산과정에서 해인이라는 보물을 지닌 성스러운 존재의 등장 자체가 인류의 모든 폐해와 고난을 일시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이나 온갖 난제의 일시적 해결을 기대하는 선부론 모험주의로 연결될 위험성도 내포한다. ‘일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한탕주의라는 도박의 위험을 내포한다.

그리고 해인신앙만 맹신한다면 위기 상황의 극복 방법이 일회적이고 지극히 개인 인물 중심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구원관의 정립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 해인이라는 보물이나 해인의 소유자인 진인에 대한 신비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현실사회를 인식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기르는 일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부정적인 양상들에 대해 공포감을 확산시키거나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일은,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는 마법적인 사건이 생길 것이라는 현실도 피적인 백일몽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나의 신앙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필자는 본래의 사상적 요인이 중심이 되어 의도했던 지 또는 그렇지 않았던 지 관계없이 다양한 여러 신앙 요소가 자연스럽게 얹혀져서 하나의 독창적인 신앙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에 등장하던 해인(海印)이 차츰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 구체적인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제 해인에 관심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더욱 풍부한 ‘해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름도 전하지 않는 이야기꾼들에 의해 다듬어진 해인설화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고, 해인의 행방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감에 따라 비로소 해인신앙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적어도 근대 초에는 ‘해인 이야기’가

제3부 해인신앙의 전개과정과 종교적 의의

우리 민중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실재했음을 확인했다. ‘해인 이야기’는 조금씩 유연하게 모습과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해져 오면서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담아내는 기능을 해 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무미건조하고 갑작스러운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의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표현되는 이야기들이 풍요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꿈과 생각들을 단단히 얹매고 있는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몽환적인 마음속 세계로 여행하거나 꿈결과도 같은 신비한 신화의 세계로 가보는 것도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나아가 설화에서는 용궁(龍宮)에 있던 보물로만 이야기되던 해인은 스님, 도사, 이인 등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인물을 상징하여 그들이 바로 해인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일반인이 해독하기는 무척 어려운 비결을 이용하여 해인의 신비성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마침내 진인(眞人)이나 천자(天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나름대로 해인에 대한 설명과 주장을 통해 새로운 믿음을 유발하고 확산해 왔다.

이에 따라 해인은 개인의 축재(蓄財)와 기복(祈福)을 위한 사스러운 보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보물로까지 믿어졌다. 결국 해인신앙은 장차 해인을 가지고 나올 신성한 존재를 기다린다는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과 연결되었고, 비결, 예언, 사건 등을 자양분 삼아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해인신앙으로 전개되었다.

해인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절대자’이며, 해인을 보유한 나라는 세계 상등국(上等國)으로 발전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상 천국(地上天國)을 이 땅에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다. 서구문화의 급속한 유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충격을 받은 이 땅의 민중들이 선택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인이라는 성스러운 보물의 소유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며 또는 그 소유국이 우리나라라는 믿음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해인(海印)의 주인공인 진인(眞人)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는 자연스럽게 종교적 교리 체계로 성립되기까지 확대된다.

여기서 해인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인이라는 성스러운 보물을 통해 현실적으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곧 다가올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와 상징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과 문제가 해인이라는 성스러운 구원의 상징이자 보물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해인 이야기’의 핵심이다. 가진 자 - 못가진 자, 가난한 나라 - 잘사는 나라, 높은 자 - 낮은 자, 힘센 자 - 약한 자, 구원받지 못한 개인이나 국가 - 구원받은 개인이나 국가 등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불균형한 것들 사이에 잠시나마 해인을 통해 조정과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만들어 보려는데 ‘해인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

요컨대 해인신앙은 현재 한국종교의 중요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신종교의 각 교단에서는 해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해인이라는 보물을 둘러싼 끊임없는 재해석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해인신앙은 현재에도 활발히 살아있는 종교현상의 하나이다.*

김탁박사/신종교 연구가

필자 소개: 김탁 박사는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와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27회》

목차	정씨(鄭氏)란 정도령(正道令)을 표현한 것인데 역시 은서법(隱書法)을 써서 음(音)으로 쓴 것이다.	같이 4도(四倒)를 떠난 자는 곧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맹지심 정진력으로 용맹심과 정진력으로 인한 연고라.	이경칠일 승일신여래 경에 7일이 승리하는 날이니 여래가 되시는 날이다.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증일아함경 권37 (增一阿含經 卷三十七)》 彌勒菩薩應三十劫當成無上正等正覺 미륵보살응삼십겁당성무상정득정각 미륵보살은 응당히 30겁이 지나서야 최고의 깨달음(무상정득정각)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4도라 함은 네 가지 뒤집힌 것. 즉 본래 인간의 모습은 항상 영원하며(常), 즐거우며(樂), 진실한 내가 있으며(我), 깨끗한(淨) 존재이지만 그 본래의 모습이 뒤바뀌어(倒) 영원한 것이 없고 괴로우며 참다운 내가 없고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뒤바뀐 것(四倒)을 초월하면 곧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상락아정(常樂我淨) 속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今離四倒入涅槃 금이사도입열반 우리들도 4도를 초월하여 열반에 들게 하소서 如來若入於涅槃者 我等云何與是毒身 同共止住修於梵行 여래약 입어열반자 아등운하여시독신 동공지주수어범행 여래께서 만약 열반에 드신다면 우리들은 어찌하여 이 독이 가득한 몸으로 더불어 함께 머물러서 범행(梵行)을 닦습니까?	使彌勒在後過去 多薩我竭阿羅何三耶三佛 사미륵재후과거 다살아갈이라하삼야삼불 미륵부처나 뒤에 오는 부처나 과거에 있는 부처나 다살아갈이라하 세 분 세 부처이시다.	知七日後 佛當出現 지칠일후 불당출현 7일 후에 마땅히 부처가 출현함을 알라. 삼천 년이 된 다음 7일 후에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여기서 30겁이라 한 것은 능엄경(楞嚴經)에 1세기(世紀)를 1겁으로 기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짝을 맞추어 보면 역시 삼천 년이 된다. 일반적으로 일 겁이 백 년이라는 것이 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구절을 열반경에서 찾아보자. 열반경은 석가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누웠을 때 제자들이 세존 앞에 모여서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한 내용이다.	如來今者 永無四倒 則已了知常樂我淨 何姑不住一劫 半劫教導我等 여래금자 영무사도 즉이로 지상락아정 하고불주일겁 반겁 교도아등 여래께서 이제 4도를 완전히 초월하셔서 곧 이미 상락아정을 아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일겁 정도도 못 계시고 반겁 동안만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까?	我等亦當隨佛世尊入於涅槃 아등역당수불세존입어열반 우리들도 또한 마땅히 불세존을 따라서 열반에 들겠나이다. 위의 구절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1겁은 통상 100년으로 풀어야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由勇猛而得成佛 유용맹이득성불 용맹으로 말미암아 성불한다. 불기(佛紀) 3000년이 정확히 언제냐 하면 1973년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북방 불교에서 써 오던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다. 그러나 흔히 올해(2025년)를 불기 2569년으로 적는데 이것은 원래 남방 불교에서 쓰던 것으로 1962년 세계불교인대회가 열려 편의상 남방불교의 안(案)대로 세계가 통일해서 쓰기로 한 것이다. 1962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북방 불교의 불기를 사용했으며, 인도(印度)왕의 비문을 해석해 보아도 역시 삼천 년설이 일치되며 삼장법사(三藏法師) 불공화상(不空和尚)이 전해 준 능엄경(楞嚴經)에도 역시 일치되고 있다.	《화엄경 권79 (華嚴經 卷七九)》 已經日月 年載 이경일월 년재 경에 일과 월은 년으로 기재한다. 경에 일과 월은 년으로 기재한다고 하였으니 7일은 곧 7년으로 적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삼천 년이 되는 1973년에 7년을 더하면 1980년이 된다. 바로 1980년이 승리하는 해이니 미륵부처님이 여래가 되시는 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나의 시대는 삼천 년으로 끝나고, 내가 삼천 년 후에 다시 와서 저 미륵부처에 귀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삼천 년이 끝나는 1973년도 이후에는 말법시대로 북방불기 3007년이 되는 1980년에 미륵부처님이 조(曹)씨로 출현하여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로써 모든 중생을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케 하는 대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격암유록 말운론 (格菴遺錄 末運論)》 釋迦之運三千年 彌勒出世鄭氏運 석가지운삼천년 미륵출세정씨운 석가세존의 운은 삼천 년인데 삼천 년만에 미륵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 정씨의 운이 시작된다.	《열반경 권2 (涅槃經 卷二)》 時諸比丘白佛言 世尊 如佛所說 離四倒者 則了知常樂我淨 시제 비구백불언 세존 여불소설 이사 도자 즉로지상락아정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세존께서 80세에 반열반(樂涅槃)에 이르셨으니 1겁(100년)도 못 계신 것이며 49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니 약 반 겁 동안을 설하신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세존 당시에는 1겁을 통상 100년	《증일아함경 권70 (增一阿含經 卷七十)》 彌勒菩薩 經三十劫 應當作佛 미륵보살 경삼십겁 응당작불 미륵보살이 삼십 겁을 지나 응당히 부처를 이루는데	《화엄경 권70 (華嚴經 卷七十)》	